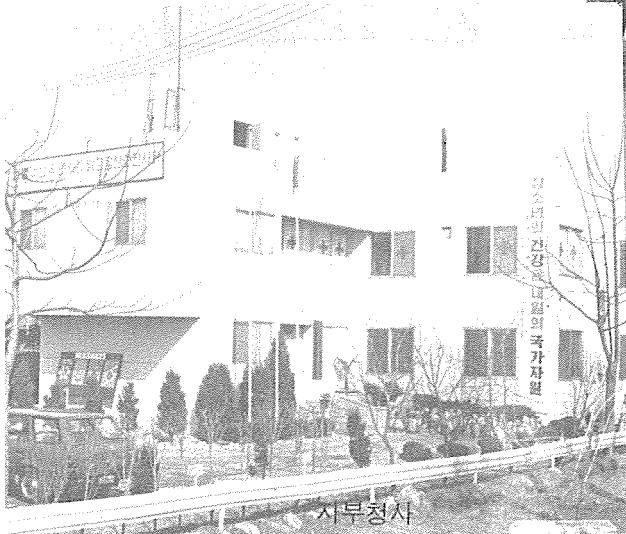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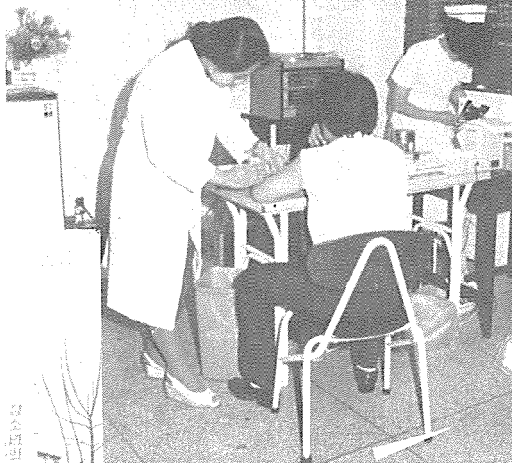


오늘도 맡은바
임무수행에
最善을 다한다.

강원도 지부 ④



사무청사



寄協 · 健協

25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강원도 지부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이번 8월호 시도지부 순례 지면을 채운다.

1. 道勢

가. 人口數

계	남	여
1,816,365명	927,598명	888,767명

나. 行正區域

시	군	읍	면	동	리
6	15	22	90	2,142	10,138

다. 學校現況

학 교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계	1,032	10,464	449,211
국민학교	764	6,544	228,238
중 학교	162	2,232	128,367
고등학교	106	1,688	92,606

라. 醫療保險組合現況

4 개조합

강원 제 1 지구(춘천)

강원 제 3 지구(강릉)

강원 제 4 지구(사북)

강원 제 5 지구(태백)

계	피보험자수	피부양자수
254,285	67,960	186,325

2. 事業計劃

가. 寄生虫 驅除事業

사 업 별	대상인원	구 분	비 고
계	1,302,600		
학 생	928,000	연 2 회	
주 민	220,000	연 1 회	

근로자	80,000	〃	
요충	51,000	〃	
간흡충	20,000	〃	국고사업
보조금	3,600	〃	지방사업

나. 健康檢査事業

검 사 별	대상인원	비 고
요 검사	4,000	
혈액학 검사	4,000	
생화학 검사	4,000	
혈청학 검사	10,000	
세포진 검사	2,000	

3. 地理的 條件

江原道の 총面積은 2만5,697km²이며 이 가운데 體戰線 以南이 67.8%인 1만6,894km²이고 道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길이는 182km이며 海岸線 길이는 212km로서 군사도시가 상당히 많으며 또한 강원도 면적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2만1,050km²가 임야이며 거의 高地帶로 이루어져 있어 험준한 山脈과 아울러 山水가 미려하기 그지 없다. 이에 반해 學生數가 불과 10餘名 밖에 되지 않는 산간 오지 地域에 출장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4. 事業遂行

가. 寄生虫 驅除事業

지난 70년대초만 하더라도 寄生虫 감염율이 80% 이상이던 것이 現在에 와서는 顯著히 減少되어 있다. 이는 실로 寄協 全職員이 갖은 逆境을 이겨낸 功



준한 努力의 成果라 본다. 또한 江原道 지부는 다가올 85년 全國體典 및 86아 시안 게임과 88 서울 國際 올림픽 競技를 앞두고 寄生虫 없는 國民이 되기 위해 구제사업을 계속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이며 천연두(일명: 곰보)같은 무서운 병도 마침내 사라지듯 全道民이 적극적으로 이에 參與한다면 기생충 감염을 0%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반면 최근에는 各種 特殊 기생충이 問題가 되고 있어 점차 特殊 기생충 退治事業에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蟯虫같은 도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많은 기생충 管理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健康管理 事業

發足된지 몇년 안된 햇병아리이나 지

난 몇년의 事業遂行의 成果로 비추어 볼 때 본 靑도에 進入하는 것도 時間問題인듯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 健康管理의 重要性에 對한 國民意識 수준은 상당히 落後되어 있다. 自動車가 事故를 豫防하기 위해 매년 定期檢査를 받고 있는데 이는 큰 사고를 事前에 對備하는데 그 目的이 있듯이 사람도 매년 定期的으로 自身의 健康을 檢査하여 큰 禍를 事前에 免할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가 되면 平均壽命이 72세가 된다고 한다. 이는 실로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비전염성 만성질환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조기 치료토록 유도하는 保健分野의 1人으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느낀다.

江原道 支部는 세포진 檢査(도비 및

시군비 보조금) 및 심전도 검사(도내 초·중학생 대상)가 활발히 進行되어 지난 6月初부터 한림대학 춘천 성심병원의 敎授를 위촉하여 자궁암 세포진 검사는 임상병리과 박 영의 敎수가 심전도는 내과 敎수이신 선덕재 敎수님께서 判讀을 맡아주셨는데, 많은 業務에도 불구하고 健協 江原道 支部를 돕겠다고 나서 熱心히 判讀해 주시고 있다. 또한 지난 7月에는 國庫 보조금으로 檢診버스 健康 9號를 引受받아 起動力에 있어 한층 活性을 띠고 事業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健康管理 事業 推進 與件 및 우리의 課題

우리나라도 患者들이 병이 發生하여 綜合病院을 찾는 階段이 많이 있다. 이는 매년 定期的인 檢査後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미흡한데 있다.

기동력과 장비를 완비한 健協 각 市道 支部는 대도시는 물론 오지 地域住民 및 낙후지역을 巡廻檢診 함으로써 全國民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健康管理 協會는 檢査의 척도인 程度管理의 強化는 물론 각종 최신 장비와 고급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며 統計資料의 충분한 確保 및 광범위한 調查研究 事業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으며 실로 名實공히 綜合檢査 system의 完備로 健康관리 事業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各疾患別로 호발 연령층에 集中管理하여 母子保健→學校保健→厚生福祉施設(住民, 老人)이 連繼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치밀한 計劃이 樹立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모든 分野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各分野別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住民保健, 學校保健, 産業保健, 保健醫療機關, 研究機關, 學術機關, 有閑社會團體들과 有機的인 단합으로 業務를 체계화시켜나가며 각종 형태의 事業을 豫算위주로 추진하여 國費, 地方費, 교위예산, 의보예산 등으로 編成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를 위해서는 內實化를 기한 連次的인 事業의 擴大를 이룩하고 運營해 나가야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볼 때 健康관리 事業은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實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韓國 健康管理協會 江原道 支部 全職員은 道民의 健康은 우리가 맡고 있다는 실로 막중한 任務를 짊어진 만큼 오늘도 맡은바 任務遂行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 <필자=장재성 사무국장>

이달의 寄協표어

기생충없는 나라

올림픽에 승리한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